

1분기 이어 2분기 ‘깜짝실적’ 기대… 현대차株, 목표가 상승중

올 자동차지수 30.62% 상승
외국인 올 1조2018억 어치 사들여
현대차 주가 올해만 24% 급상승
목표주가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다음 타자로 자동차주가 부상하면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현대차에 대한 주목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지수는 올해 30.62% 상승하면서 KRX 업종별 지수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대장주’인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만 24% 상승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두드러지며 올해만 1조2018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2조8580억 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가량의 영업 이익이 전망됐지만 실질적으로 3조59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실적호조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누적된 대기 수요가 여전하고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생산과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 주가는 최근 실적 호조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대차의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와 비교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현대차의 저평가를 언급했다.

남주신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쌓인 대기수요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며, 법인용 차량 판매 분까지 고려한다면 2분기는 물론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목표주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의 현 재고는 1.7개월 수준으로 적정 재고(2.6개월)와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생산 부분에서는 5~6월 사업계획 달성 가능성이 100% 확실해지면서 당분간 생산과 판매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NH투자증권 28만 원, DB금융투자 27만 원 등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자동차주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김기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사상 첫 3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추경하면서 기아가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건조한 업황과 2분기 계절성을 고려 시, 초과 달성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수익성 둔화 신호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실적 펀더멘털(기초체력) 기반의 건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 매출·영업이익 호조에 따라 관련 부품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중소형 부품업체 45개 사의 1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영업이익은 689.6%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저출생 극복 일환 의정부서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고산지구 주민들을 만나 지역 돌봄시설 관련 불편한 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정부시와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전용 문화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수준 높은 원스탑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거점공간이다.

시범사업은 지구내 즉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고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실시된다. 특히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원거리 출퇴근·돌봄시설 부족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LH는 토지주택연구원(LHRI)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보육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식

당, 키즈공방 등을 제안했다.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착공해 오는 2026년에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CE 싱가포르리츠 ETF’ 수익률 상승

한국투자, 올 수익률 10.85% 성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싱가포르리츠 ETF’가 국내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18일 전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 ETF는 총 12개(ETF체크 기준)이다.

이 중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연초 이후 수익률 10.85%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 역시 각각 2.96%(1위)와 24.66%(2위)로 우수하다(17일 한국거래소 기준).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은 31.58%로 집계됐다.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기초지수인 ‘Morningstar Singapore REIT Yield Focus Index’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중 최근 12개월 기준 배당수준이 높고, 재무적 안정성 수준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수 산출과 발표는 글로벌 독립 투자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가 맡고 있다.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것 또한 ACE 싱가포르리츠 ETF의 특징이다. 4월 말 기준 기초지수 구성종목인 싱가포르 리츠의 최근 3년(2020~2022) 평균 배당금은 4.66% 수준이다. 미국·일본·한국 리츠 ETF 대비 좋은 배경으로는 싱가포르 리츠 시장만의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 리츠 시장은 높은 정부 관계기관 스폰서 리츠 비중 등 덕분에 경기 민감도가 비교적 낮다.

남용수 한투운용ETF운용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싱가포르 리츠가 글로벌 리츠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왔다”며 “특히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기 둔화와 국제 금리 피크 아웃 기대가 맞물린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재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투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美 배당 다우존스 순자산 1600억원 기록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가 상장 6개월 만에 순자산 1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기초지수인 Dow Jones US Dividend 100 기준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3% 중반의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4%의 배당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인버스와 채권형 ETF 위주로 유입된 가운데에서도 주식형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자금 유입은 독보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형석 신한자산운용 ETF운용팀 매니저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운용능력에 따라 배당 및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총괄 대표(왼쪽)와 대우건설 백정환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식에 서명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해상풍력 시너지 극대화 나서

코리오제너레이션과 업무협약

대우건설은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 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에서 개발 중인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태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코리오는 사업개발부터 투자와 사업관리를, 대우건설은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설계·구매·시공(EPC)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백정환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코리오제너레이션과의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한국투자 ‘나스닥 토탈뷰’ 무료 제공

오전 10시~오후 5시 거래시간 확대

한국금융투자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주식 주간거래 시간을 확대하고, 나스닥 호가 정보 서비스 ‘나스닥 토탈뷰(Nasdaq Totalview)’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거래 시간은 서머타임 적용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간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 정규장은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 애프터마켓은 오전 5시

부터 오전 9시까지를 포함해 하루 총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나스닥 토탈뷰는 개별 종목의 호가와 잔량을 20호가까지 보여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 제공되는 한정된 정보에 비해 가격과 수급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투증권은 투자자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최상의 투자환경을 위해 무료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며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